보건사회연구 36(3), 2016, 239-26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3.239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재혼자를 중심으로

김 효 순
(세종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대상은 재혼한지 1년이 넘었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18인의 재혼부부를 9인은 실험집단으로, 9인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2015년 9월 첫 주부터 6주간 동안, 주 1회 총 6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혼가족 결속, 부부만족도, 역할긴장, 의사사통 및 문제해결 변인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역할긴장과 결속도를 높이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이 그들의 가족관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갈등 등 가족 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재혼가족에게 재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방지하여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재혼가족,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4255)

■ 투고일: 2016.1.31 ■ 수정일: 2016.3.31 ■ 게재확정일: 2016.4.11

Ⅰ. 서론

재혼이란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난 뒤 새로운 배우자와 다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새출발이다. 이처럼 재혼 가족은 이전 결혼의 해체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 가족이기에 재혼부부의 결혼 안정성이나 결혼만족도 등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이혼율의 증가는 초혼핵가족 해체 및 재혼율의 증가를 동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대 초혼 이혼자의 2/3(여성은 69%, 남성은 78%)가 이혼 후 재혼이었고 사별 후 재혼은 여성 5%, 남성은 12%였으며(Schoen & Standish, 2001), 이들의 약 70%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결혼함으로써 재혼가족을 형성하여 재혼의 보편화 현상이 이루어졌다(Chadwick & Heaton, 1999). 재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초혼보다 이혼율이 높아서 재혼의 65%, 삼혼의 75%가 결혼 5년 이내에 파경을 맞고 가족해체의 모양새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김효순, 2015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부부의 이혼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 결과는 없으나, 재혼부부의 이혼상담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재이혼 상담 건수가 2010년 9.1%에서 2013년 13.7%로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4), 재혼부부의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가족유형인 재혼가족에 대하여 그들의 가족욕구를 이해하고 가족문제를 예방. 개입하기 위한 가족복지적인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혼가족 가운데서도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은 가족관계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이 더 많아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수 년 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며 불만족과 좌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등 가족구조가 취약해진다고 보고된다. 만일 재혼부부가 안정되고 만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혼 가족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공격성, 행동장애와 비행, 정서적 부적응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효순, 2015; 김효순, 하춘광, 2011; Dunn, O'Connor, & Cheng, 2005; Gosselin, 2010; Gosselin & David, 2007; Song, Benir, & Glick, 2012; Lisa & John, 2015). 반면 결혼생활에서의 안정된 가족관계는 가족의 결속, 역할긴장,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효과적인 가족문제 해결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고된다(김효순, 2015; Dunn, O'Connor, & Cheng, 2005; Gosselin & David, 2007; Gosselin, 2010; Song, Benir, & Glick, 2012; Todd, Brianna & Jeffry, 201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됨이 귀속적인 초혼가족과는 달리 재혼가족에서는 부모 됨이 자의식 적이고 성찰적인 것으로, 새부모의 역할은 친부모의 역할보다 어렵고 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새자녀의 부모 노릇을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야기된다. 또한 새부모와 새자녀간의 관계를 안내해줄 명확한 역할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재혼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임시방편 적인 방식으로 취득된다고 볼 수 있다. 불명확한 역할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재혼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혼가족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차연실, 2004; Adler-Baeder & Higginbotham, 2004; Cherlin, 1978; Gosslin, 2010). 가족 결속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이다. 이러한 가족 결속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주며 정상적인 가족은 물론 문제가 있는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도 파악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념이다(Crosbit-Burnett, 1984). 초혼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생물학적, 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접촉빈도와 의지에 의해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재혼가족은 경계설정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계의 불명료함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가족의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Coleman, Ganong, & Fine, 2002), 가족관계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부갈등에 있어 의사소통은 부부가 가진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서로 수용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깊이 있는 부부관계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룩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핵심요소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갈등대처 능력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부부는 초혼부부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Todd & Jeffry, 2015), 민감한 의사소통 주제는 아예 회피한다고 보고된다(Afifi & Schrodt, 2003). 반면, Golish(2003)는 재혼가족이 지닌 의사소통의 강점으로 소통하는 일상, 개방성, 함께 시간보내기, 명확한 규칙과 경계가 있는 의사소통, 문제해결노력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강한 재혼가족을 만들어준다고 보고하였다. 재혼부부는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

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해결해야 할 갈등과 문제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부부들은 초혼부부보다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뒤쳐진다고 보고된다(DeLongis & Preece, 2002).

지금까지 살펴본 재혼가족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재혼가족에게는 새부모-새자녀관계[1]를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다. 즉,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재혼가족의 고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혼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과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복지 차원의 일반적 가족프로그램으로는 재혼가족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발달과업 및 욕구를 해결해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요인들(가족결속, 역할긴장, 부부만족도,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완성된 재혼가족의 관계향상 가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기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에 시점에 따른 가족결속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에 시점에 따른 부부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에 시점에 따른 역할긴장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에 시점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에 시점에 따른 문제해결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1)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의 계부모-계자녀 관계를 새부모-새자녀관계로 명명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유자녀 재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는 양육, 훈육과 관련된 어려움, 부모역할 기대의 불일치 등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있어 많은 갈등을 겪는 존재로 간주된다. 초혼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접촉빈도와 의지에 의해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Smart, Neal과 Wade(2001)가 행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재혼가족 구성원일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형제간에 가족범주에 따른 정의가 종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혼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호성이나 불일치는 종종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재혼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계의 모호성 정도를 연구한 Stoll 등(2005)에 의하면 각 배우자들이 전혼자녀를 데리고 결혼하였을 때 모호한 경계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 가족역사를 공유한 부분과 안한 부분,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동맹관계의 변화 등에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Hetherington, 1999; Song, Benir, & Glick, 2012).

재혼가족은 오랜 동안 명확하기 않은 가족경계의 설정으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 구성 원간에 의식차이가 존재하여 왔다(Colman, Ganong, & Fine, 2002; Rodgers & Rose, 2002).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경계가 초혼보다 더 모호한데 이러한 모호한 경계는 역할의 모호성과 더불어 가족 간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증폭시킨다. 재혼가족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새부모와 새자녀 간 그리고 부부 간 유대형성이 쉽지 않아 재혼가족관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재혼가족에게는 높은 역할긴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새부모-새자녀 사이에 가족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적인 관계 역시 애매모호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혼가족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부모역할과 관련 있다고 보고된다(김연옥, 2007; 김효순, 2010; Beaudry, Boisvert, Simard, Parent & Tremblay, 2004;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즉, 대부분의 재혼가족들은 가족경계가 모호하고, 가족원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알기 힘들어 역할모호성이나 역할혼란과 같은 역할긴장을 겪는다고 보고

된다(김효순, 2010, 2015). 재혼가족은 가족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족을 정의할 때에도 가족원간에 의식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경계 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또한 역할이 귀속적인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의 새부모-새자녀 관계는 노력과 수행에 근거하여 충성심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유대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가 나아가기 때문이다. 즉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경계문제가 초혼보다 더 모호하며, 모호한 경계는 역할의 모호성과 더불어 기존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증폭시킨다(김효순, 2015). 따라서 대부분의 재혼가족 부모들은 재혼가족 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균형을 맞추는데 갈등을 느끼며, 재혼가족원간에 이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재혼가족 내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자녀는 자녀로의 역할에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당한 역할긴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역할긴장은 재혼가족관계에 가장 큰 위기가 된다(김효순, 2015; Ganong & Coleman, 1997).

가족의 결속은 오랫동안 가족학 연구자들에게 흥미 있는 연구 주제였는데, Hill(1949)은 전쟁 때문에 헤어진 가족의 통합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Wynne, Rycoff, Day, Hirsh(1959)는 가족 결속이 가족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성취해야할 중요 과업 중의 하나는 가족과 외부세계와의 경계 그리고 가족 내 세대 간의 일정한 경계를 정의, 유지하는 것인데 특히 재혼가족의 경우 전배우자가족과 재혼가족 간에 경계가 설정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초혼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생물학적, 법적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경계의 불명료함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또한 계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결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risbit-Burnett(1989) 역시 재혼가족의 적응척도인 Stepfamily SAdjustment Scale(SAS)를 개발하면서 재혼가족의 결속은 새부모-새자녀 간 적응의 중요 하위차원임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재혼가족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개인, 부모, 가족간의 생활주기가 일치하지 않고, 많은 상실과 변화 후에 재혼가족이 시작되어 자녀와 부모들은 이전가족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달리 사회적 규범이 미비하여 가족원의 융통성과 조정능력이 더 요구되는 반면 더 많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혼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은 초혼 핵가족보다 결속이 약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된다(Ganong & Coleman, 1997).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혼부부들에게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김효순, 2015; Halford, Nicholson & Stanley-Hagan, 2007). 선행연구(김효순, 2015;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Prado & Markman(1999)에 의하면 초혼부부들에 비해 재혼부부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대화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Hetherington과 Clingempeel(1992)는 재혼부부나 초혼부부 모두는 의사소통이 부정적일 경우 부부간 만족도 역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Prado와 Markman(1999)의 연구에서는 초혼부부와 재혼부부의 초기단계에서 부부간 만족도와 부정적인 의사소통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은 결혼만족도와 매우 밀접하다고 보고된다(최규련, 1994; Golenberg & Goldenberg, 1991; Noller & Fitzpztrick, 1990). 즉, Noller와 Fitzpatrick(1990)은 결혼만족을 위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여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부들보다 더 자주 서로에게 동의하며 상대편 배우자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충분한 의사소통, 불분명한 메시지, 제 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병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재혼가족이 직면하는 두 가지 관계상의 과업은 가족기능을 위한 부부관계의 질 향상과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김효순, 2015; Walsh, 1992; Willetts & Maroules, 2004). 부부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부모-자녀관계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혼부부에게 강한 유대가 형성되었다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용이하게 형성되고 발달에 도움을 주면서 만일 기타 가족원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Ganong and Coleman, 1994; Visher & Visher, 1996). 따라서 많은 연구들(김효순, 2015; Berg, 2003; Marcia, 2006; Sarve, Jay & Mason, 2004)은 강한 부부유대관계를 재혼가족관계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하여 왔다. 재혼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초혼부부들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총체적인 행복도가 초혼부부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Halford, Nicholson, & Sanders, 2007), 초혼부부들이 재혼부부들보다 결혼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보고되기도 한다(Rachel, Jessica, Michael, & Christine, 2013).

사람들은 일상생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데 이것을 문제해결이라고 한다. 즉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반응을 확인하고 발견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이며 정신건강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Maydeu-Olivares & D'Zurilla, 1996). 재혼한 부부는 가족체계 내에서 새로 형성된 하위체계이며 가장 취약한 체계이다. 재혼부부는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해결해야 할 갈등과 문제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으로 인해 재혼부부들은 초혼부부보다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뒤쳐진다고 보고된다(DeLongis & Preece, 200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재혼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결속, 역할긴장,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가족문제 해결능력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재혼가족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재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로 재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김효순, 2015). 지금까지 존재하는 재혼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재혼가족 내 역할갈등이 심하다고 알려졌던 계모의 역할갈등,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적응문제들을 주로 다루어 왔다(김효순, 2015). 차연실의 연구(2004)는 재혼여성들의 역할긴장과 결혼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재혼 가족의 결혼 만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인 재혼 부부 쌍방 또는 재혼가족 자녀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재혼부부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연구참여자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한 연구로는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의 연구(2000)와 장혜경과 민가영의 연구(2006)가 존재한다. 하지만 장혜경과 민가영의 연구(2006)는 재혼가족의 삶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쳐 결혼만족과 기타 가족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국내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이론적인 모형 제시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김효순, 2015). 정현숙 등의

연구(2000)에서는 가족체계이론과 발달적 관점을 바탕으로 재혼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혼가족은 복잡한 가족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녀가 개입된 경우는 가족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정현숙 외의 모형에서는 연구참여자 7인을 대상으로 재혼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재혼 준비도가 증진되어 재혼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여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을 재혼가족 준비교육에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현은민의 연구(2002)에서는 재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재혼가족들을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 성공적인 재혼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한 포용, 통제, 친밀감의 세 상호작용 영역으로 구성된 재혼가족 FIRO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아쉽게도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은주의 연구(2004)에서는 재혼부부 123쌍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재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재혼부부 간의 문제해결능력과 새부모-새자녀 간 의사소통이 촉진되었으나 효율적인 자녀 양육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재혼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진행한 임춘희(2006)는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완화기법 다루기, 새부모와의 갈등해결 방안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될 것을 제시하여 재혼가족의 역할긴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Satir 이론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살펴본 김지영의 연구(2007)는 재혼자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한 욕구조사 통해 재혼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여 재혼가족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이 중요 변인임을 제안하였다. 김미옥과 천성문(2014)의 연구에서는 재혼부모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6회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할긴장과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재혼가족 프그램에서 역할긴장 변인을 중요 변인으로 보았다.

서구의 경우 가족체계이론과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예비 재혼가족을 위한 재혼준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재혼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김효순, 2015). Messinger, Walker와 Freeman(1978)은 이혼 이후의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에서 정체감의 확립, 이전 결혼에서 파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재혼 배우자로서의 역할수행 등의 변인을 중시하였다. Ihinger-Tallman과 Pasley(1997)는 특히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위한 개입을 위해, 자녀양육 기법, 부부 간 양육기법 차이이해,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기법 및 가족관계 증진 기법 등이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을 제시하여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변인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Stepping Together(ST)이라는 프로그램은 가족체계이론을 기반으로 Beaudry, Boisvert, Simard와 Parent(2004)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Stepping Together: Creating Strong Stepfamilies(ST-CS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이론적 배경은 없으며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12시간용 프로그램으로 Visher부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Papernow의 발달단계에 따라 재혼가족 신화와 현실다루기, 새부모-새자녀 관계향상, 부부관계 강화, 이전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형성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결혼만족도, 가족결속 및 역할긴장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mart Steps(SmSt)라는 프로그램은 생태학, 가족체계이론, 생애주기, 가족강점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2001년 Adler-Baeder에 의해 개발된 RE(Relationship Enhancement) 프로그램이다. SmSt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진행되며 부부와 자녀에 대해 각각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회기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Stepping Stones(StSt)라는 프로그램은 Walsh(1996)에 의해 개발된 6시간용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프로그램과 집단별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 및 부모역할 전략방안 위주로 구성되어 역할긴장과 가족결속을 중요 변인으로 보았다.

3. 프로그램의 기본관점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이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계이론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요소와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개발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요소와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김효순, 2015)[2]. 1950년대 이후 재혼가족 연구들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2) 프로그램개발 과정은 투입-과정-산출로 구성되며, 투입의 요소는 환경, 조직, 개인으로 규정하고 각 요소를 다시 가치와 요구로 구분하고 환경적 가치, 조직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환경적 요구, 조직적 요구, 개인적 요구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투입된다.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족체계이론은 재혼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체계이론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가족생활에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지에 관한 체계와 하부체계들의 경계와 규칙에 관한 것이다(김효순, 2006). 가족은 부부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그리고 형제-자매 하위체계라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보다 더 넓은 체계 내에서의 각 개인들의 집단이다. 재혼가족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새부모-새자녀 관계의 질, 역할 기대의 모호성, 의견일치와 의사결정, 재혼 가족의 유형 등으로 밝혀졌다(김효순, 2015; Ihinger-Tallman & Pasley, 1997). 특히 새부모의 역할에 관한 신념, 새부모의 역할에 관한 배우자 간의 의견일치과정과 합의 등이 부부하위체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sseli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 구성에 포함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재혼가족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문제지향적 관점보다는 강점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재혼가족의 복잡성을 고려치 않고 새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 결손-비교 시각을 특히 비판하는 문제지향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반면에 강점관점은 이혼과 재혼을 사회문제나 병리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 속에서 확립된 규범적인 생활양식의 선택(normative lifestyle choices)으로 간주한다(김효순, 2015). 따라서 강점관점의 연구자들은 대개 재혼가족 내의 가족과정을 연구하면서 상호작용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핵가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서구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도 문제지향적 시각을 지양하면서 결손-비교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재혼가족의 복잡성을 고려치 않고 새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강점관점은 이혼과 재혼을 사회문제나 병리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 속에서 확립된 규범적인 생활양식의 선택(normative lifestyle choices)으로 간주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단지 상호작용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핵가족 비교집단을 사용하며, 대개 재혼가족 내의 가족과정을 연구한다(김효순,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게 여러 갈등과 부적응ㅈ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부모와 새자녀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러한 강점관점도 차용하고자 하였다 Saleebey(2009)는 강점관점이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목적 및 꿈을 실현하게 하거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드러내어 묘

사하고, 탐색,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다(김효순, 2015, 재인용). 이처럼 강점관점은 역경 속에서도 발휘되는 인간의 잠재적 역량과 인간 정신 속에 내재하는 고유의 지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토대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에 참가할 참여자 대상자들의 모집을 위하여 가족관련 기관, 지역일간지 및 정보지, sns 및 구두 홍보를 실시하여 총 20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참여자 조건 및 프로그램 참여 일정이 가능한 18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목적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자발적 동의서도 작성하였다. 홍보를 통하여 모집된 사람들 중 연구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재혼한지 1년이 넘었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18인의 재혼자들을 9인은 실험집단으로, 9인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재혼기간은 1-5년이 더 많았으며,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으로 전문대졸과 대졸도 많았다. 재혼유형은 사별 후 재혼보다는 이혼 후 재혼이 월등히 많았다. 단순재혼가족이 복합재혼가족보다는 더 많았으며, 연령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4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았다.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이메일 설문지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실시절차에 대한 재혼부부의 만족도를 조사를 위해 프로그램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장소는 S기관의 강의실이었으며 2015년 9월 첫 주부터 6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7:00-8:30분까지, 주 1회 총 6회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와 자료집을 통한 활동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인의 강사가 각 회기를 담당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	2(22.2)	1(11.1)
	여	7(77.7)	8(88.8)
연령	40-50세	6(66.6)	5(55.5)
	50-60세	3(33.3)	4(44.4)
학력	고졸	4(44.4)	5(55.5)
	전문대졸	3(33.3)	2(22.2)
	대졸	2(22.2)	2(22.2)
재혼기간	1-5년	6(66.6)	5(55.5)
	5-10년	3(33.3)	4(44.4)
재혼유형	이혼 후 재혼	8(88.8)	7(77.7)
	사별 후 재혼	1(11.1)	2(22.2)

2. 연구도구

가.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총 6회기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3]. 본 프로그램의 실행 및 효과성 평가단계에서 본 프로그램이 재혼가족의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용과 운영 형식이 재혼가족에게 실시하기에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복지 이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이후 토의 및 자문을 거쳐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 수정, 보완하였다.

3) 본 프로그램은 김효순(2015)이 개발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이다.

표 2. 프로그램 목표 및 회기 내용

회기	목표	활동내용	비고
1회기	재혼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하기	- 사전검사 -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에 대한 협조를 부탁 한다 - 참여자 소개하기 - 초혼과 재혼의 차이 등 재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재혼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 재혼가족이 겪는 기본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인식하기	과제
2회기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을 기른다.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부부 간 대화를 점검한다. - 부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학습하기(I-Message 훈련하기)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 공감, 경청능력 -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끈다. - 적극적 감정표현하기. 표현기술은 그들 자신의 감정사고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고, 타인에 대해 덜 공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부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훈련하기	과제: I-Message 하루에 1회 이상 훈련하고 그 내용을 적어오기
3회기	새자녀와 관계 맺기: 가족경계와 역할모호를 해결하기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재혼가족의 경계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 새자녀에 대해 이해하고 새자녀가 겪을 경계혼란과 역할혼란에 대해 이해하기 - 경계모호와 역할모호로 인한 부부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새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해 해결방법 찾아가기 - 부부 간 양육태도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점 찾기 - 친구같은 부모되기에 대해 훈련하기	과제
4회기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를 다룬다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과제

회기	목표	활동내용	비고
		- 평소 경험하는 부부간의 갈등유형을 이해하기 - 부부 간 갈등 인식 대처하기 - 갈등이나 문제발생 시 해결방법 찾아가기 - 부부 간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법 찾기 - 분노조절 예방 및 대처법 훈련하기 - 갈등 장면을 주제로 집단성원과 나누기 - 배우자와 공감적 대화기법을 습득하여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적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5회기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히 언급한다. -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차이점(가치관, 성격, 기호 등) 찾아보기 - 배우자 간 긍정적인 부분 발견하기 -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시키다. - 부부 역할을 점검하고 느낀 점을 나눈다. - 이전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	과제: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기
6회기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을 그려본다.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히 언급한다. - 1회기부터 5회기까지의 내용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 미래의 부부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 해본다. -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인식 한다. - 사후검사	

나. 측정도구

1) 재혼가족의 결속(Stepfamily Cohesion)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혼가족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sbie-Burnett(1989)가 개발한 재혼가족의 적응 척도인 Stepfamily Adjustment Scale(SAS)를 활용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재혼가족 결속력은 7문항으로 새부모와 새 자녀 관계의 결속정도를 측정해준다. Crosbie-Burnett(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의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2) 부부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재혼부부 부부만족도 역시 Crosbie-Burnett(1989)가 개발한 재혼가족의 적응 척도인 Stepfamily Adjustment Scale(SAS) 중 부부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부만족도는 10문항으로 부부 서로 결혼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이다. Crosbie-Burnett(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만족도의 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3) 역할긴장(Role Strain)

본 논문에서는 재혼부부의 역할긴장과 관련하여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역할긴장척도를 사용하였다. 재혼부부의 역할긴장은 Whitsett & Land (1992)이 재혼부부의 역할수행상의 긴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0 문항으로 된 역할긴장척도(Role Strain Index)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Whitsett와 Land(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80이었다.

4) 의사소통(Marital Communication)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척도는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의사소통방식 척도(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 35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20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4]. 설문의 내용은 자신과 배우자가 하는 행동이 각 질문의 행동 묘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부부간 의사소통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9점 리커트 척도이며, 배우자 각각이 자신과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9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Christensen & Sullaway(198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8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83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의 의사소통방식 척도(CPQ)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질문들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부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다

5)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문제해결 척도는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문제해결능력 척도(SPSI)를 Maydeu- Olivares와 D'Zurilla(1996)가 재개정한 개정판 문제해결능력(SPSI-R) 척도이며 최이순(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52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kert형 5점 척도이다. 최이순(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77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재혼가족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종속 측정치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z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별 재혼가족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재혼가족 결속, 부부만족도, 역할긴장,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을 변인으로 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및 각 회기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동일한 시기에 실험집단과 유사통제집단 사이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적용 직후, 역시 동일한 시기에 두 집단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두 번의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분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z*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재혼가족 결속, 부부만족도, 의사소통, 역할긴장 및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종속변인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Kolmogorov-Smirnov z
재혼가족결속	통제집단	3.45	0.79	.732
	실험집단	3.48	0.78	
부부만족도	통제집단	3.52	0.62	.713
	실험집단	3.68	0.43	
역할긴장	통제집단	3.53	0.84	.494
	실험집단	3.62	0.73	
의사소통	통제집단	7.39	1.21	.531
	실험집단	7.51	1.24	
문제해결	통제집단	47.52	7.86	.632
	실험집단	47.63	7.88	

2.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인 <표 4>를 보면,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재혼가족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표 5>와 같다. 재혼가족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에서 재혼가족 결속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간의 *t*-검증을 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99%(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재혼가족 부모가 사전검사에 비해서(*M*=3.48, *SD*=0.78) 사후검사의 평가치(*M*=3.67, *SD*=0.79)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재혼가족의 결속도 증진에 효과

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역할긴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간의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4.68, p<.001).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재혼가족 부모가 사전검사에 비해서(M=3.62, SD=0.73) 사후검사의 평가치(M=3.59, SD=0.63)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역할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부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간의 t-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의 부부만족도 점수(M=3.68, SD=0.43)가 사전검사의 부부만족도 점수(M=3.78, SD=0.45)와 유의미한 차이(t=4.02, p<.01)를 보여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재혼가족의 부부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간의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4.72, p<.001).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재혼가족 부모의 의사소통이 사전검사에 비해서(M=7.51, SD=1.24) 사후검사의 평가치(M=7.66, SD=1.30)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역할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혼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간의 t-검증을 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99%(t=3.95,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재혼부모들이 사전검사(M=47.63, SD=7.88) 사후검사의 평가치(M=48.89, SD=6.79)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재혼가족의 문제해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재혼가족 결속, 부부만족도, 역할긴장,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에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4. 통제집단에 대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종속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가족결속	3.45	0.79	3.46	0.80	.362
역할긴장	3.52	0.62	3.78	0.64	.492
부부만족도	3.53	0.84	3.54	0.89	.771
의사소통	7.39	1.21	7.40	1.25	.591
문제해결	47.52	7.86	47.79	6.4	.671

표 5. 실험집단의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차이 검증

종속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가족결속	3.48	0.78	3.67	0.79	5.32***
역할긴장	3.62	0.73	3.59	0.63	-4.68***
부부만족도	3.68	0.43	3.78	0.45	4.02**
의사소통	7.51	1.24	7.66	1.30	4.72***
문제해결	47.63	7.88	48.89	6.79	3.9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완성된 재혼가족의 관계향상 가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본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서 참여자들은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을 이해하고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인사 소개를 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6회기 전 과정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초혼가족과 재혼가족의 차이 등 재혼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재혼가족의 문제점과 장점을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1회기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이 속한 재혼가족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문제 등이 지금의 재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2회기에서 참여자들은 재혼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특히 양육갈등 등을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 대화를 점검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재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새자녀가 느꼈을 갈등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3회기에서는 가족원 서로에게 가지는 기대를 확인하고 새부모로서 혹은 배우자와 새자녀에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탐색해보았다. 새자녀와 관계 맺기를 통하여 재혼가족의 가족경계와 역할혼란을 이야기 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인식하는 연습을 하였다. 3회기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자녀에게 친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운함 등도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고 담담히 현 재혼가족의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4회기에서는 실제 부부간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을 찾고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였다. 분노조절훈련을 통하여 마음에 쌓여만 있었던 갈등의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가능하면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분노조절훈련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5회기에서 참여자들은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 부부간 긍정적인 모습을 찾고 부부역할을 점검하고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혼을 결심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부부가 합심하여 서로 흔들리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지내야 함을 인지하였다. 6회기에서 참여자들은 가족이란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추억, 즐거움을 나눈 시간들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큰 상처를 주지 말고 균형을 잃지 않고 격려와 지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가족 앨범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만의 새로운 역사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만들고 배우자와 새자녀의 장점을 찾고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인 프로그램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통제집단 간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혼가족 역할긴장 감소에 있어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무처치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재혼가족 간 역할을 다룬 재혼가족 프로그램인 전현숙 등(2000)과 김미옥과 천성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프로그램 실시 후 역할긴장이 감소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혼자들은 역할긴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와 역할 바꿔하기 등을 통해 역할긴장의 원인을 직면하게 되었고 재혼생활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초혼핵가족과 재혼가족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여 새자녀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있고 프로그램참여자들과 솔직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받아들이고 찾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재혼가족은 새 배우자와 새자녀 간의 관계를 인도해줄 명확한 역할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계부모는 갈등을 느낄 수 있다(김효순, 2015). 따라서 재혼가족에

있어서 역할수행상의 혼란은 일반적이며, 거의 예측가능하다고 보고된다. 재혼가족에서 많은 역할들이 불명확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새부모의 역할들이 모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역할긴장을 재혼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결과 역할긴장 감소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재혼가족 부모와 자녀들 간의 결속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혼가족 부모의 새자녀 관계 증진에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무처치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새부모-새자녀 관계 맺기를 주제로 하는 재혼가족 프로그램인 김미옥과 천성문(2014), 고은영과 서영석(2012), Stepping Together(ST) 프로그램 및 Smart Stepts(SmSt) 프로그램 등의 실행결과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재혼가족 부모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개인, 부모, 가족 간의 생활주기가 일치하지 않고, 많은 상실과 변화 후에 재혼가족이 시작되어 자녀와 부모들은 이전가족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달리 사회적 규범이 미비하여 가족원의 융통성과 조정능력이 더 요구되는 반면 더 많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초혼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은 생물학적, 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가족 경계를 가질 수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접촉 빈도와 의지에 의해 가족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즉, 재혼가족은 경계설정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계의 불명료함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또한 새부모와 새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결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재혼가족이 좀 더 깊이 있는 상호간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 즉, 서로가 잘 소통하였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등 내적인 면을 알아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친자녀와 새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그동안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초기에 참여자들은 새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로 회피하게 되거나 새로운 관계형성을 피하고 이전가족에 대한 충성심갈등으로 인식하였

다. 재혼가족의 결속은 가족원간의 질투심이나 충성심 갈등이 없을 때 증가한다. 이러한 질투심이나 충성심 갈등이 청소년 계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복리(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혼부부들이 초혼가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충성심 갈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혼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부부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혼부부 만족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게 무처치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인 ST-CSS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식 또는 제도에 의하여 이루는 관계로서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손정연, 한경혜, 2015). Satir(1972)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가정의 건축가들이며, 가정이 세워지는 주춧돌이라고 하여 가족에서의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효순, 2015, 재인용). 재혼가족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계상의 과업을 지는데 그 하나는 가족기능을 위한 부부관계의 강화이며 나머지는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과업이다. 당연히 부부관계가 안정적이라면 부모-자녀관계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즉 재혼부부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결혼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되고 긍정적인 계부모-계자녀의 관계 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가족원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완충장치를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강한 부부유대를 재혼가족 적응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하여 왔다(Marcia, 2006; Visher & Visher, 1996). 즉, 부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재혼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안전감을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의 부부관계를 위한 협동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Visher와 Visher(1996)는 가족치료에서 새부모와 새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부부간의 유대를 먼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실시 초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재혼생활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재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혼부부의 강한 유대형성이 결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필수요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긍정적인 새부모-새자녀의 관계 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안정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회기

를 거듭할수록 재혼부부의 변화된 심리적 만족감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넷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재혼가족 부모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혼부부 의사소통에 있어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무처치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인 김지영(2007), 박은주(2004) 및 ST 프로그램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공감 및 경청하기, 적극적 감정표현하기 등을 통해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게 하고,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부부 의사소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하였다. 따라서 재혼생활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누르고, 감정에 무지했던 적은 없었는지,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살펴보고, 최근 배우자가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도록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서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깊은 감정을 나누지 못한 채 행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을 이해하도록 하고 행동의 결과 이면에 있는 서로에 대한 속 깊은 감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이 재혼가족 부모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혼부부 문제해결에 있어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무처치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부 간의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주제로 한 박은주(2004)와 김지영(2007)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문제해결기술은 실생활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재혼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D'Zurilla와 Nezu(2007)의 문제해결이론에 기초하여 문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문제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정확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명확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생성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사전 연습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이 합리적 해결기술에 있어 문제에 대한 정의와 대안을 생성하고,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창의적인 대안 생성의 훈련과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의사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재혼생활의 문제 상황에 대해 재혼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해결능력의 합리적 해결기술의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적인 대안 및 실행

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재혼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합리적 해결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실제적인 불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만족에 있어 문제의 귀인을 상대에게 전가 시켰던 부분이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귀인을 재정의 하고 살펴봄으로서 재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과 합리적 해결기술을 통한 문제해결가능성을 인식함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박성주, 2011).

본 연구는 재혼가족이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재혼가족이 안고 있는 장점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재혼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아울러 재혼가족을 가족관계와 기능 면에서도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 결손관점 내지는 문제지향적 관점을 주로 차용하였다(김효순, 2015; 임춘희, 2006; 정현숙 등, 2000).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재혼가족에 대해 결손관점이나 문제 지향적 관점 외에도 재혼가족의 강점을 바라보고 재혼가족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혼가족 간 가장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재혼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재혼자가 아닌 재혼부부를 연구참여자로 할뿐만 아니라 단순재혼가족과 복합재혼가족 등의 재혼가족 유형에 따른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재혼가족에 관한 개입 자료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 향후 재혼부부의 관계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혼부부의 이혼, 삼혼 등 재이혼율을 막고 재혼부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혼가족의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개입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집단프로그램으로서 혹은 재혼가족 상담과 관련한 실천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순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과 가족복지이며 현재 사회적 기업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ner9657@sjcu.ac.kr)

참고문헌

고은영, 서영석. (2014). 재혼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적응의 관계: 가족경계 혼란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pp.397-419.

김미옥, 천성문. (2014). 재혼가족의 생활적응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pp.903-928.

김연옥. (2004). 재혼가정의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pp.215-235.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99**(2), pp.171-195.

김지영. (2007). **재혼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지프로그램 개발 연구-사티어성장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김형민. (2015).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효순. (2010). 새부모 양육태도 유형과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0**, pp.245-268.

김효순. (2015). 재혼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세부모·새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5**(2), pp.262-280.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pp.75-102.

김효순, 하춘광. (2011).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 새부모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3**(1), pp.137-168.

노명숙. (2004).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 pp.169-175.

박성주, 박재환. (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pp.47-73.

박은주. (2004).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손정연, 한경혜. (2015). 베이비부머의 생애사 경험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한국노년학, 35**(2), pp.491-507.

양세혁. (2013). <Brave>와 <Finding Nemo>에 나타난 부모자녀 캐릭터 사이의 갈등구조 분석: MBTI 유형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pp.24-37.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관계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pp.743-760.

장혜경, 민가영.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 (2000).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5), pp.1-13.

통계청. (2014). **인구동태통계연보**. 대전: 통계청.

현은민. (200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pp.21-39.

차연실. (2004).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최이순. (2003). 알코올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결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pp.927-934.

Adler-Baeder, P., & Higginbotham, K. (2004). How marital dissolution affects children? Variations by age and sex. *Developmental Psychology, 25*, pp.540-549.

Afifi, J. D., & Schrodt. P. (2003). Uncertainty and the avoidance of the state of one's family in stepfamilies, post-divorce single parent families, and first marriage famil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pp.516-532.

Beaudry, J. M., Boisvert, Simard, M., Parent, C., & Tremblay, M. C. (2004). Communication: A key component to meeting the challenges of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2*(1), pp.85-104.

Berg, E. C. (2003). The effect of perceived closeness to custodial parents stepparent and nonresident parent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0*(1), pp.60-68.

Chadwick, B. A., & Heaton, T. B. (1999). *Statistical handbook on the American family*. Phoenix. AZ: Oryx.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pp.634-650.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Coleman, M., Ganong, L., & Fine, M. (2002).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1288-1307.

Crosbie-Burnett, M. (1984). The centrality of the step relationship: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33*, pp.459-464.

DeLongis, A., & Preece, M. (2002). Emotional and Relational Consequences of Coping in Step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34*(1-2), pp.115-138.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pp.156-163.

Maydue-Olivares, A., & D'Zurilla, T. J. (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pp.115-133.

Dunn, J., O' Connor, T. G., & Cheng, H. (2005).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between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ial fathers, and nonresidential stepfa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pp.223-234.

Felker-Thayer, J. A., Stoll, B. M., Arnaut, G. L., & Fromme, D. K. (2002). A Qualitative Analysis of Stepfamilies: The Steppar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8*(1), pp.177-189.

Ganong, L. H., & Coleman, M. (1997). How society views stepfamili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6*, pp.85-109.

Gonzales, J. (2009). Pre-family Counselling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0*(2), pp.148-157.

Gosselin, J. (2010).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1(2), pp.108-123.

Gosselin. J., & David, H. (2007).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8*(1), pp.29-53.

Halford, K., Nicholson, J., & Sanders, M. (2007). Couple Communication in Stepfamilies. *Family Process, 46*(4), pp.471-483.

Hehterinton, M., & Clingempeel, W. G.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2*, pp.50-78.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pp.129-140.

Hill, R. (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Ihinger-Tallman, M., & Pasley. K. (1997). Stepfamilies in 1984 and Today-A scholarly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6*(1), pp.19-40.

Marcia. M. (2006). Stepfamily Enrichment Program: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Remarried Couples.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1*(2), pp.135-152.

Messinger, L., Walker, K. N., & Freeman.S. J. (1978). Preparation for Remarriage Following Divorce: The Use of Group Techniques.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try, 48*(2), pp.263-272.

Prado, L. M., & Markman. H. J. (1999). Unearthing the seeds of marital distress: What we have learned from married and remarried couples. In M. J. Cox and J.Brooks-Gunn(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 and consequences* (pp.51-85). Mahwah, NJ: Earlbaum.

Rachel, M. M., Jessica L. C., Michael, E., & Christine, M. S. (2013). What Factors Influence Marit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First and Second Marriag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 pp.78-93.

Rodgers,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ce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pp.1024-1038.

Saleebey, D. (2009).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xtension and cautions. *Social Work, 41*(3), pp.296-305.

Sarve, G. M., S., Jay, S., & Mason, M. A. (2004). Stepparents on Strpparenting: An Exploratory Study of Stepparenting Approached.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1*(3), pp.81-97.

Satir, V. (1972).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nce and Behaviorbook.

Schoen, R. & Standish, N. (2001). The retrenchment of marriage: Results from marital status life tables for the United States, 1995.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pp.553-563.

Song, C., Benir, M., & Glick, J. (2012).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transition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3*(1), pp.18-33.

Smart, C. B., Neal, B., & Wade, A. (2001). *The Chabging Experience of Childhood: Families and Divorce*. Malden, MA: Blackwell.

Stoll, B. L., Arnaut, G. L., Fromme, D. K., & J. A., Felker-Thayer, J. A. (2005). Adolescents in stepfamilie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4*(1), pp.177-189.

Todd, M. J., Brianna, M. L., & Jeffry, H. L. (2015). Adult Attachment and Stepparenting Issues: Couple Relationship Quality as a Meditating Factor.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6*(1), pp.80-94.

Visher, E., & Visher, J.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Brunner/Mazel.

Walsh. W. M. (2004).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of Development, 70*, pp.709-715.

Willetts, M. C., & Maroules, N. G. (2004). Does remarriage matter?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living with cohabiting versus re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1*(3), pp.115-133.

Wynne, L., Rycoff, I., Day, J., & Hirsh, S. (1959).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a. *Psychiatry, 21*, pp.205-22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tep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Kim, Hyo-Soon
(Sejo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step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A total of 18 peopl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of whom 9 were selec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9 as a control group. The participants were those who had been remarried for more than a year with children. Consisting of 6 sessions, each with a distinct goal, the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6 weeks from the first week of September, 2015. The program was found to have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hesion, role strain, mari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in stepfamilies. This program can be used to help stepfamily members deal with and solve their interfamilial problems and conflicts and enhance their family relationship. Also, this program can help to prevent stepfamily breakups and contribute to successful remarriage life.

Keywords: Stepfamily, Step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